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불교 담아라!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플래시 기술을 응용한 애니메이션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현대불교신문사·불교정보화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제1회 한국불교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하고 12월 12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인터넷 포교 활성화와 현대 감각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캐릭터 산업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향후 불교문화콘텐츠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어 청소년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분야는 불교경전, 교리, 사찰문화, 한국불교, 스님이야기, 불교와 환경, 전통사찰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로 코믹, 다큐, 드라마, 뮤직비디오 형태의 자유형식으로 2~3분 분량

백만원과 부상이 주어지며 우수상 2명과 금상 3명에게는 각각 1백만원과 5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입상자에게는 종계종과 관련된 IT분야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소프트웨어인 플래시를 이용해 만든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최근 유선방송, 영화, 교육, 게임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전자우편, 모바일 콘텐츠로도 보급되고 있어 그 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교승님은 "현재 종단에서는 불교 인터넷 인프라구축, 양질의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등 정보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그 일환으로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0-9800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조계종 첫 공모전, 12월 12일까지 접수 문화콘텐츠·청소년 포교 활성화 기대

이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능하고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한다. 최우수상인 총무원장상에는 상금 2

시상식은 서울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올 연말 실시될 예정이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란 1997년 미국 매크로미디어사가 만든 동영상 제작 소

불교 동호회가 똥쳤다



◀불교통신동호회 운영진이 연합모임을 청원했다. 좌측부터 송시모 이계진, 연꽃나라 오유영, 청년불교유리사랑 이성락 운영자.

30여 동호회 모여 '고집불통' 개설 화합도모 신행 길라잡이 전력

사이버공간에서 불교동호회를 이끌며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운영자들이 연합모임을 발족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음 인연카페, 해인사의 향기, 세이클럽 청년불교유리사랑, 네이트 연꽃나라, 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30여개 불교통신동호회 운영진은 최근 연합모임 카페 '고집불통(cafedaum.net/bultong)'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고집불통'은 사성제인 고집멸도의 앞 두글자와 불교통신동호회의 줄임말인 '불통'을 합쳐만든 합성어. 그동안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연합모임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지난 9월 5일에 서야 1차 운영회의를 열고 네티즌분자들의 친목을 도모는 물론 동호회 운영의 문제점인 법사 및 수행장소 문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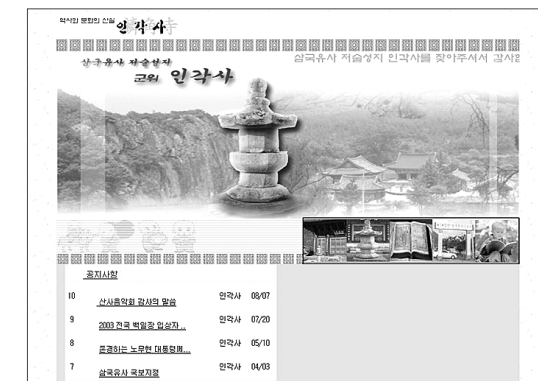
결, 불교체형프로그램, 불교자료 등의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한 11월 8일~9일 충남 천안 우리 농원에서 2차 운영자 모임을 개최하고 운영자들의 불교교리 교육, 리더쉽 교육, 전산화 교육 등 인터넷 포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울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합모임의 회칙과 정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네이트 연꽃나라 운영자이자 '고집불통' 카페 개설자인 오유영(29)양은 "고집불통이 운영자 모임인 만큼 연합회, 사찰생태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수행과 신행에서 실천수행하는 모습을 보여겠다"며 "앞으로 통신동호회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터넷 포교와 사이버 신행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하겠다"고 말했다. (016)243-1030



군위 인각사 (www.ingaksa.org)

일연스님, 삼국유사 정보 한눈에



◀군위 인각사 홈페이지는 700년전 일연스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진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군위 인각사는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사찰로 유명하다. 아직까지 일연스님의 법향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가 많고 스님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경상북도의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불자들이 쉽게 참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래서 2000년 주지로 부임한 상인스님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ngaksa.org)를 개설하고

불자들이 행사이후에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삼국유사>와 일연스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 인각사 홈페이지에는 일연스님의 생애, 선사상, 저술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의 구성, <삼국사기>와의 비교, 역사서로서의 가치 등이 세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히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인사모 인각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삼국유사 강독회 등 커뮤니티도 활성화 되어 있어 일연스님과 <삼국유사>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시·공간 한계 뛰어 통해 극복 커뮤니티 활성화로 사찰 홍보

인각사 홈페이지는 인각사 소개, 일연성사, 삼국유사, 삼국유사문화재, 열린마당 등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네티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코너는 바로 삼국유사문화재. 인각사는 2001년부터 매년 '삼국유사 문화제'를 열고 전국청소년 백일장, 일연스님 다례제, 삼국유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각사 홈페이지 삼국유사 문화제 코너에서는 매년 펼쳐지는 '삼국유사 문화제'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인지 직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혀주는 본고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해의불교사이트 순례

파울닷컴 (http://www.phayul.com)

티베트불교 소식지 파울(www.phayul.com)은 티베트불교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는 사이트로 특히 달라이 라마등 티베트 불교 지도자의 소식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파울은 불교뉴스와 특정한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포럼방을 따로 두고 있다. 불교뿐만 아니라 교육, 자기표현, 시문학 등 다양한 방을 두어 불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포토갤러리 코너에서는 불교행사에 대한 포토뉴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이기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개시판 연보기

◎ 나이는 삼십대인놈이 몸은 육십대이네. 면목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몸이 전염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제가 관리를 못한것에 따른 불찰이고,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낀 한 주였습니다. 정원하, 네이트연꽃나라 자유게시판

◎ 내것이 아닌것을 하나하나 버리니까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주어진것도 이렇게 많은데, 육신내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는 우리법우님들 되시길 빌어봅니다. 모든것 접어 놓으셔서 가까운 곳에 가을을 느끼러 갈수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연 선이아기 이야기대방

◎ 지상에 나뭇잎마다 타는 그리움 남겨 놓고 떠나는 가을이 무심하구나. 가을이 나에게서 무심하다. 공덕봉 청년불교유리사랑 자유게시판

왜 지금 명상의 열풍이 부는가?

힘겨운 일상,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 이제 하루 15분의 명상으로 치유한다.

명상계의 대가이자 400만 부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제시하는 과학 명상법

역자 : 장현갑(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영남대학교에서 유아경 강) · 장주영(명상학과 명상과학 전문번역가) · 김대곤(한경아카데미 원장/명상지도자)

명상이 세계 최고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리 '명상의 과학(the Science of Meditation)'이라는 특집기사로 실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1,000만 명 이상이 명상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 병원, 법률사무소, 정부청사, 회사 사무실,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양의 신비한 미신' 정도로 여겼던 명상에 대해 '무한 효능이 갖는 과학'이라고 경탄하며 그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명상열풍의 모태가 된 의학박사 벤슨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완반응>의 후속서 <과학 명상법>이 명상열풍의 진실을 밝힌다.

"행복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가꾸는 방법으로 하루 15분의 명상을 추천한다. 명상은 지혜를 일으켜 현명한 삶을 살아가 수 있게 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김해관 사장(엔트리아)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티벳 승려들의 수행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명상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상 지침서." 정규수 회장(삼우 EMC, 세월반도체)

"몸과 마음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과학 명상법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병철 회장(우리금융그룹)

하버드 벤슨 · 윌리엄 프록터 공저/장현갑 · 장주영 · 김대곤 공역/국판/양장/212면/8000원

* 이 책과 관련된 명상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02-3604-8855)